

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7> 자비 실천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한 이래 오늘날까지 조계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자비의 현대적 실천인 복지와 기부 문화도 지난 10여년 간 적지 않은 성과를 내왔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 있어서 불교계 복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7가지 핵심과제의 마지막으로 '자비실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상구보리 하회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은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념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 가르침은 결국 깨달음과 자비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비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비의 현대적 실천에는 복지와 기부가 존재한다. 불교계 근대적 복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범어사는 개화기 당시 명정학교 개교 등 교육불사를 진행했으며, 현존하는 최고의 유지원인 강릉 금천유지원은 1923년 오대산 월정사가 운영을 금강산 건봉사가 교육을, 유정사가 출자를 맡아 이어졌다.故 양정목 스님이 사재를 털어 1947년 개원한 대전 성덕보육원도 지금은 '대전 자혜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적이고 현대적인 사회 복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1990년대 이후다. 현재는 조계종에만 70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753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이중 노인복지관이 43.4%로 가장 많고, 영유아 복지시설(18.2%), 장애인 복지시설(10.4%), 아동·청소년복지시설(10.0%) 순으로 이어진다.

2008년에는 불교계 최초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이 출범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양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정부와 지자체 위탁의 복지기관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불교계 사회복지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계 자원봉사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광하 작은 손길 대표는 불교가 복지를 통한 자

비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 계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타종교들은 이미 복지관 위탁을 넘어 탁발자, 난민,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복지 계층을 개발하고 있다"며 "복지는 어렵고 고된 가시밭길이다. 국민 의존도가 높아서는 안된다. 불교계 복지 계층도 더욱 심층,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교평론에 특집에 기고한 '불교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불교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채워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교수는 인적 자원 관리, 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조 교수는 "불교 사회복지계는 인적자원 개

'자비포교' 구체적 방안 창출  
다양한 복지 계층 개발 필요  
전문 인력 교육에도 신경써야  
기부문화 확산위해 인식 개선  
자비에 대한 학문적 접근 시급

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종사자다. 이들에 대한 전문성 관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며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 양성은 불교사회복지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회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기부문화도 고민해봐야 할 과제다. 특히 불교에는 보시로 대표되는 아름다운 나눔문화가 있다. 조계종이 설립한 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이하 동행)도 설립돼 적재 적소에 필요한 자금과 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자비실천을 위한 중대한 사업 역량이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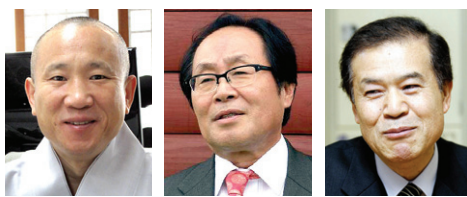
반면 당면 과제도 있다. 출범 4년이 됐지만, 일반 불자들의 꾸준한 동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동행에 CMS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불자는 약 1천 2백여 명.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동행 역시 일반 불자

# “자비없는 불교 없다” 생활 속 실천교육 필요



능인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계층 월동 준비를 위해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는 자비실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헤일 스님, 방영준 교수, 김광하 대표

관선을 위한 캠페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쉽게 배가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동행 사무총장 헤일 스님은 "동행 출범이후 불교계 기부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불자들이 기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동행이 직접 찾아가 기부 문화 활성화를 홍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청소년, 환경, 해외 원조 사업 등을 통해 동행을 알리고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먼저 단체가 친숙하게 다가갔다는 것이다.

헤일 스님은 "최근 한국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답사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7월에는 지구 온난화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와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동행을 알리고 사업 역량을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불교 사회복지 발전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전문

가들은 사부대중의 인식 개선을 꼽았다. 헤일 스님은 "부처님의 동체 대비사상이 항상 생활에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으며 김광하 대표는 "좀 더 어려운 곳에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사부대중의 인식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지난 3월 15일 열린논단에서 발표한 '자비 실천의 윤리교육적 접근'이라는 제하의 논문은 거시적이면서도 가장 실천적인 방안이다.

방 교수는 자비 실천이 깨달음과 수행의 차원을 넘어 윤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문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 교수는 "자비 실천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자비라는 큰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자비 윤리학을 정립시키고 자비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정교한 틀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한 자비 포교의 구체적인 방안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비 윤리학은 현대사회에서 작동할 자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철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 영역과 생물학, 의학 등 자연과학 영역에서 다양하게 자비의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통합종단 50주년 핵심과제' 연재를 마치며

## “조계종 역사성 다시 생각하자”

최병현 교수 '...역사상의 조계종' 서 지적

대한불교조계종은 올해로 통합종단 5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큰 도전도 받았다. 조계종은 6월 7일 종단 제1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정화불사의 터널이 50년이 지났고, 개혁 종단이 열리지 18년이 지났지만 개혁과 변화는 여전히 종단적 숙제다.

지난해 조계종은 1년 내내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를 총결산하는 12월 대토론회에서는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중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우선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교육원장 현용 스님은 '선종 중심의 종파불교를 벗어 던지고 현대에 맞는 회통불교로 새롭게 정립하자는' 주장을 했다. 심지어는 종명에 대한 적합성도 거론했다. 이는 현대적 회통불교 정립은 종단운영 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많은 화제가 됐다.

한국불교역사 안에서 '조계종'이라는 종명은 현재까지 3번 나타났다. 첫 번째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창립한데 반발한 선승들이 자체적으로 조계종을 창종한 것이다. 당시 조계종은 조선 초까지 3백년을 유지했다.

두 번째 등장은 일제 강점기다. 1941년 전시동원체제라는 미명 아래 출범해 해방까지 4년 동안 등장한다. 해방 이후 '조선불교'로 종명 바뀌었다가 정화 유치가 시작된 1954년 조계종이 다시 등장한다.

조계종이라는 종명 자체가 동아시아 불교 종명 중 유일하다. 중국, 일본 불교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병현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학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불교역사상의 조계종'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조계종은 한국 선종의 주체적인 의식의 표현"이라며 "한국불교역사에서 조계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면에서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현재의 조계종은 1962년 4월 11일 출범한 것으로 보아 그 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근본적인 의식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비구와 대처승 통합으로 시작된 통합종단. 하지만 대처승이 빠진 조계종의 반세기 역사를 통합종단으로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문제는 역사성과 이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다. 1962년 1월 문교부 장관의 종용으로 비구승 중흥 하등산 스님과 대처승 중흥 국승 우 스님이 불교재건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선언문을 작성했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적극적 개입으로 비상총회 등을 거쳐 4월 11일 비구-대처승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탄생했다.

하지만 통합종단 안에서도 법정 공방 등 반목이 이어졌고, 결국 1970년 대처승들이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해 나가면서 문제가 마무리된다. 통합종단이 더 이상 통합종단이 아니게 된 것이다.

최 교수는 "통합종단은 불교계

### 통합종단이라지만 결국 분종 禪만 집중... 회통불교 어디로 종단적 역사적 고민해야

분쟁을 교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위험에 못 이겨서 성립된 것이어서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계종단 역대 총정 현황에 대한 문제도 있다. 1954년 불교정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1962년까지 비구승은 5대 총정이 추대됐다. 하지만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하면서 당시 추대된 효봉 스님을 초대 총정으로 확정해 정화 운동 당시 5명의 비구승 총정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현재의 조계종은 1962년 4월 11일 출범한 것으로 보아 그 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근본적인 의식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비구와 대처승 통합으로 시작된 통합종단. 하지만 대처승이 빠진 조계종의 반세기 역사를 통합종단으로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신종일 기자

##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훤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훤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훤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강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강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강처리한 금강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남성용

여성용

가격: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정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어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정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폐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집구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풀리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령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시금,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화장품사,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세교 위생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